

‘희망 씨앗’ 日 정치인 부녀

부친 쓰치야씨, 1966년 장성 축령산 편백숲 조성 기여 딸 중의원 위원장, 전남지사에 편백씨앗 250만알 전달

일본의 유명 여성 정치인이 ‘숲 속의 전남’을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중인 전남도에 삼나무와 편백나무 씨앗 기증을 약속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장성 축령산의 편백나무 숲 조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쓰치야 요시히코(土屋義彦)씨다. 2대째 전남의 숲 조성에 기여한 것이다.

지난 2008년 유명을 달리던 고 쓰치야 참의원 의장은 사이타마(埼玉)현 지사를 역임했으며, 지난 1966년 비행기에서 황량한 우리나라의 산을 내려다본 뒤 편백과 삼나무 씨앗 76만 그루분을 한국에 보낸 바 있다. 그 씨앗에서 자란 묘목의 대부분이 장성 축령산과 장흥 억불산(우드랜드) 등에 심어졌다.

전남도는 20일 “고 쓰치야 의장의 차녀인 쓰치야 시나코(土屋品子)일본 중의원 의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언니 모모코(桃子)여사를 통해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전서를 보내 편백 씨앗을 기증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시나코 위원장은 전서에서 “사이타마현 히키(比企)군에서 생산된 편백 씨앗 한 말(18ℓ) 250만 알을 10월에 채취해 건조한 뒤 11월말 경에 이 지사께 보내도록 준비중”이라며 “발아율 20%로 계산해 약 50만 그루분이 되는 데 이는 한일우호 50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나코 위원장은 또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양국민끼리 어떠한 때에도 서로를 신뢰하고 우호하기를 바란다”며 아버지에 이어 편백 씨앗을 보내는 의미를 적었다.

시나코 위원장의 아버지로 고 쓰치야 의장은 자신이 전달한 씨앗으로 조성된 축령산 편백숲을 지난 2004년 찾았으며, 시나코 위원장은 아버지가 작고한 지 4년만인 2012년 축령산 편백 숲을 둘러봤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이 잘 들어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난 19일 집무실에서 쓰치야 시나코 일본 중의원 의부위원장의 전서를 그 언니 모모코 여사를 통해 전달받아 함께 펼쳐 보이고 있다.

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서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이 지사를 찾은 모모코 여사는 “고 쓰치야 의장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19살의 말단 군인으로서 일본 하마마쓰(浜松)에서 재일한국인이 건네준 주먹밥으로 배고픔을 달랠던 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다”고 전했다. 고 쓰치야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일지사의 개최를 제안해 실현한 바 있다.

시나코 위원장의 전서를 전달받은 이 지사는 “고 쓰치야 의장님 부녀의 2대에 걸친 한국 사랑, 전남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이 일이 한일관계 발전은 물론, 제가 추진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모모코 여사에게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한일관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자신을 소

개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50만 그루분의 편백 씨앗을 받았으니 이 나무들을 키우듯이 한일관계도 지난 50년보다 더 좋은 50년으로 키워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원산지인 편백은 치유 효과가 높은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함유된 나무로, 축령산과 우드랜드 등의 편백숲에는 해마다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쓰치야 부녀가 씨앗을 채취한 히키군은 일본 최고의 ‘목공의 고장’으로, 1300년 동안 명성을 유지해 왔으며, 이곳의 편백과 삼나무는 ‘니시기와 목재(西川材)’로 불리는 사이타마 명목(名木)이다.

전남도는 이 편백 씨앗을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부지에 내년 2월 파종, 묘목 시험재배를 거쳐 2018년 적절한 장소에 심을 계획이다. 이날 모모코 여사는 편백으로 만든 이 지사의 명함도 선물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쟁 씨앗’ 日 정치

집단지위권 등 11개 안보법안 본회의 가결 전후 70년만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이 집단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준비를 모두 마무리,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됐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지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지난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

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지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일본은 분쟁 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 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

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인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성립한 안보 관련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많은 일본 국민이 안보법제 정비로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법안 추진 구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국회의원당 주변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열렸으며 18일에도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집결했다. /연합뉴스

벼농사 대신 해삼 키울까

도, 육상 양식기술 국내 첫 개발...울금보다 4배 이상 소득 기대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해삼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일 “지난 4월 진도 해삼산업연구소 인공 부지에 국내 처음으로 소형 트랙형 축제식 양식장을 조성해 체중 0.3g의 어린 해삼 3000마리를 입식, 4개월만에 평균 30g으로 키우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해삼 육상 양식이 비슷한 여건의 간척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노지 트랙형 축제식 양식장에서 평균 체중 150g 이상으로 성장한 해삼을 생산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 농어가에 보급할 경우 고소득 발자목인 ‘울금’보다 4배 이상의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어서 연구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해삼이 잘 자랄 수 있는 바닷물을 끌어들이 서식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과학원은 해삼 육상 양식이 비슷한 여건의 간척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노지 트랙형 축제식 양식장에서 평균 체중 150g 이상으로 성장한 해삼을 생산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 농어가에 보급할 경우 고소득 발자목인 ‘울금’보다 4배 이상의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인문학 여행 떠나요

광주시, 10월 6일부터 문화강연 ‘시민의 숲’서 철학·클래식 등

싱그러운 가을,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이 시작된다.

광주시는 2015 시민 숲 문화강연을 내달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시청 1층 시민의 숲에서 연다. 20일 밝혔다. 강연은 여행, 철학, 클래식, 역사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직장인과 학생 등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무료로 열린다. 마지막 강연은 목요일이다. 내달 6일 박하선 사진작가의 ‘오지여행-수미산 가는 길’을 시작으로 ▲문인식 전남문화재단 연구소장의 ‘호남, 새로운 천 년을 열다’(10월 13일) ▲정진기 전남대 명예교수의 ‘웰다잉(Well-Dying)’(10월 20일) 등이 준비됐다. 이어 ▲김지준 도예작가의 ‘그릇 이야기’(10월 27일) ▲김승일 조선대 명예교수의 ‘나도 클래식? 그레, 클래식’(11월 3일) ▲임영진 전남대 교수의 ‘선사고대로 떠나요 광주여행’(11월 10일) ▲김기태 대구아양문화센터 인문학 전문 강사의 ‘내 안에 있는 자유를 깨워라’(11월 20일) 등이다.

이 강연은 전국 최초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인 열린 강연방 아리바다(arribada.gwangju.go.kr)의 오픈라인 사업으로 추진된다. 모든 강연은 시간이 없어도 함께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녹화, 공개된다. 광주시는 3월 국내 저명인사와 지역 대학교수 등이 지식을 기부해 시민과 공유하는 ‘아리바다’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6개월만에 조희수 3만건을 돌파하는 등 지식공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역사와 예술, 철학에 대한 소양과 인목을 넓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jk@

佛 수능 외국어 ‘한국어’ 필수선택 지정

프랑스 수능능력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가 필수 선택 외국어로 지정된다.

바칼로레아 외국어 시험은 제1·2·3 외국어로 나뉜다. 제1외국어에는 20여개의 외국어가, 제2외국어에는 30개 이상의 외국어가 포함돼 있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 시험을 봐야 한다.

그렇지만 제3외국어에 대해서는 수험생이 시험을 볼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시험을 볼 경우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가산점을 받게 된다. 한국어는 제3외국어로 들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올랑드 대통령은 황 총리에게 “한국어를 바칼로레아 필수선택 외국어 과목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황 총리는 “한국어를 필수 선택과목을 지정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에서도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올랑드 대통령과 황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직업교육 훈련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올라드 대통령은 “프랑스는 호텔, 신기술, 디자인 분야 직업교육 훈련에 관심이 있다”면서 “긴밀하게 교류하자”고 말했다. 황 총리 역시 “직업교육 훈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사관 이하 전 장병에 추석 ‘1박2일’ 휴가증

박근혜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한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답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장병) 본인이 원할 때 개인 휴가를 연장해 (특별휴가증)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박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격려카드

와 특별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격려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및 포격도발 사건에 단호히 대응한 것 등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치하하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라섹 ICL SMILE

LASIK LASEK 안내렌즈삽입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 빌딩

상무지구 병면
신세계백화점
운림동 병면
밝은광주안과 의원

ICT/SW 전문인력양성 전액무료교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과정 모집
교육일정 : 2015년 10월 5일(월) ~ 12월 29일(화)

- 교육과정 : 차세대 ICT 시스템 개발자 양성과정
- 교육기간 : 2015.10.5.~12.29 (3개월, 480시간, 09:00~18:00)
- 교육비 : 전액무료 및 수당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www.ictkorea.or.kr) 팩스(062-655-2115), 이메일(ictkorea@ictkorea.or.kr)
- 접수마감 : 2015. 9. 30(수)
- 지원자격 (20명 정원)
 - 고등학교 / 전문대 / 4년제 대학 졸업자
 - 실업자 / 미취업자 / 위업준비생
 - 기술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자 (* 위 자격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지원 가능)
- 특전
 - 교육기간중 약 90만원 수당과 식대지급 (출석률,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수업교재 5권 무료제공
 - 출석률 80% 이상 수료증 발급
 - 출석률 95% 이상 모범상 수여
 - 수료생 취업연계 지원(조합회원사 및 협약기업 약 150개사)
- 교육목표
 - 현재 IT에서 가장 각광받는 java Technology의 기초부터 고급기술까지 학습
 - 소프트웨어 기능에 관한 시스템 설계부터 구현까지 완성하며, DBMS 설치 및 데이터의 관리 기술을 학습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현업에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 양성
-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1일시간	누적시간
1~2주차	Core Java Programming	8	80
3주차	Database Programming	8	120
4주차	Tomcat7 기반의 ServletProgramming	8	160
5주차	Spring Framework 기본	8	200
6주차	Spring Framework 활용 (Maven, Git, JUnit, RestFull)	8	240
7~8주차	리눅스/유닉스 administrator	8	320
9주차	시큐어 코딩 in java	8	360
10~12주차	Final Project	8	480

재직자 직무향상 과정 모집
교육일정 : 2015년 10월 12일(월) ~ 11월 27일(금)

순번	훈련과정명	훈련시간	훈련기간	주야 구분	비고
1	SQL튜닝 (DB교육)	5일, 20H	2015.10.12 ~ 10.16	야간	고급과정
2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공공사업관리)	5일, 20H	2015.10.19 ~ 10.23	야간	고급과정
3	시큐어코딩 (보안교육)	5일, 20H	2015.11.09 ~ 11.13	야간	고급과정
4	Unix/Linux Administrator (시스템운영)	5일, 20H	2015.11.16 ~ 11.20	야간	고급과정
5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 스킬 (사업/품질관리)	5일, 20H	2015.11.23 ~ 11.27	야간	고급과정

* 재직자 교육시간 (18:30~22:30)
교육비 무료, 교재, 간식 제공, 주차가능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SW현장전문인력) 창립총회 개최
개최일 : 2015년 9월 23일(수) 11:00~15:00

- 행사주관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행사주최 : 한국ICT융합협동조합
- 행사장소 : 라이더몰라자 광주호텔
- 참석대상 : ICT/SW인력양성 및 수급관련 중소기업 및 한국ICT융합협동조합 회원사, 광주통합전산센터, 광주전남혁신도시 ICT/SW관계인사, 대학 등
- * 고급 품배 점심식사 및 고급 기념품(선착순 100명)을 제공

문의 **KBIZ 한국ICT융합협동조합**
062-655-2255